

가수 '테이'와 함께하는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 2023년 해양안전 홍보대사로 가수 테이 선정,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진 가수 '테이'를 '2023년 해양안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먼저, 테이가 현재 라디오 디제이(DJ)로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하여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해양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에서는 낚시 등 레저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주고, 관련 댓글 소개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작된 영상은 7월 15일(토)부터 8월 14일(월)까지 주요 역사인 서울역, 수서역, 오송역 및 부산 서면역, 강남 고속터미널의 내부 전광판 및 환승통로 등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홍보대사 '테이'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구명조끼 해(海)주세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라디오 광고는 테이가 디제이(DJ)로 활동 중인 MBC 라디오 '굿모닝 FM' 2부 말미에 송출된다.

해양안전 홍보대사로 선정된 가수 테이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해양 관련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라며, "여름철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이윤희 (044-200-5829)
<협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책임자	실 장	박호상 (044-330-2340)
		담당자	과 장	강유진 (044-330-2344)

참고

2023년 해양안전 홍보 이미지 및 영상 제작(안)

